

지혜를 구한 솔로몬

말씀 : 열왕기상 3-4장

요절 : 열왕기상 3:9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1,2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왕권이 확립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라면 3-4장은 왕이 된 솔로몬이 어떤 자세로 통치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으며 그의 왕국이 어떻게 번영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선천적인 것이나 또 공부를 많이 함으로써 얻은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신적인 지혜였습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는 백성을 공의로 통치하는 것이나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많이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하는 것을 기꺼이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조차 모르고 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지도자(목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섬겨야 할 것인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지혜를 구한 솔로몬(3:1-15)

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1)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아내로 맞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솔로몬은 안으로 인본주의 세력을 제거하여 왕권을 견고히 하고 밖으로는 외국과 유대를 긴밀히 하여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당시 최대 강국인 애굽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략결혼(政略結婚)을 하였습니다. 당시 애굽 왕들은 외국인에게 그의 딸을 주는 일이 드물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당시 국제사회에서 그만큼 강국으로 부상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는 솔로몬의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2-4) 그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대로 행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순수하였고 부친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힘써 대장부가 되고자 애썼습니다. 그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거국적으로 일천 번제를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산당은 본래 이방 신을 숭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는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

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번제(燔祭)란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온전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일천 마리의 짐승을 잡아 희생 제사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그는 일천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철저한 순종을 맹세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전적인 헌신의 표시로써 솔로몬의 신앙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20:6)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삼상2:30b)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솔로몬을 사랑하사 그에게 무엇인가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5) "At Gibeon the LORD appeared to Solomon during the night in a dream, and God said, "Ask for whatever you want me to give you."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무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였습니다.(6)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6) 그는 자신이 현재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아버지 다윗을 축복한 결과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데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개구리 울창이 적 생각 못하고 교만해져서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무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솔로몬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7)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7) 솔로몬은 왕으로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사 자신을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나 자신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자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서 온 것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겸손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작은 아이'(a little child)라고 말합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 한다'는 것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셀 수 없이 많은데 자신은 너무 어려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형

압살롭과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분수를 모르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목자가 된 것이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내가 있기까지 나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 목자가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기도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기도는 잘 들어주십니다.(눅18:9-14)

셋째로,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8,9)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8,9) “So give your servant a discerning heart to govern your people and to distinguish between right and wrong. For who is able to govern this great people of yours?”(9)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백성, 주의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의 백성 가운데는 창기와 같이 천박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그들이 인간적으로 부족할지라도 주의 백성으로 보았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근성에 찌든 형편없는 백성이었지만 주의 백성으로 보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졸장부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보고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과 백성에 대한 목자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장수를 구할 수도 있고 부강한 나라와 권세와 영화를 구할 수도 있고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원수를 멸하기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로지 백성들만 생각했고 그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백성들을 돌보고 재판해야 하는데 각 사람의 사정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인생 연륜도 짧은 그가 수많은 계층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고뇌와 아픔과 갈등들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선악 간에 분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것이 왕 중심이었습니다. 왕이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면 백성들은 싫든 좋든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백성중심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기 원했습니다. 당시에는 재판도 왕이 했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재판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왕에게 있어서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이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은 영어성경에 ‘discerning heart’로서 ‘분별력’을 말합니다. 분별력이 곧 지혜입니다.

오늘날을 가리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절대적인 규범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죄의 개념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양심도 타락하여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양심에 가책을 받아 죽을 것 같이 생각되다가도 반복해서 죄를 짓다보면 양심이 마비되어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동성연애자들은 동성연애를 제3의 사랑이라고 외치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옛날에는 동성연애는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을 꺼내는 것조차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TV에서도 동성연애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내보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왜 잘못 되었는

가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합니다.

어거스틴(Augustine)은 악의 존재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 하셨는데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고(至高)의 선(善)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에 따라 선과 악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선이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저자는 왕들을 평가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가?"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을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학교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데 지혜가 필요하고 가정을 꾸려나가거나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춘기 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게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조그만 사업을 운영하는 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있어서는 더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영혼을 구원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을 하나님의 쓰실만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제자양성에 있어서는 고차원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낭패를 당하고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혜에는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교육을 통해서 책을 읽거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인간을 교만하게 하고 못쓰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인간을 겸손하게 하고 사람을 살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 집사님이 오랫동안 남편을 위해 금식하고 통곡하며 기도도 해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하고 교회에 나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요지부동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여 집사님은 새벽예배 때 남편 구두를 교회 가지고 나와서 강대상 위에 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구두가 먼저 나왔사오니 주인도 이 구두 따라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 집사님은 그렇게 기도하긴 했지만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우스워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른 기도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실컷 웃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아침에 남편이 갑자기 자기를 따라 교회에 가고 싶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후부터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은 하나님을 한 번 웃겼더니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기뻐하였습니다. 남편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10) 솔로몬의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흡족하여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덤으로 주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충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11-13)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일까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뮐러(George Muller)는 그의 생애 가운데 오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소책자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아무런 인간적인 사심이 없는 순수한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고 하신다면 무엇을 구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黃金萬能主義)에 깊이 몰들어 돈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의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 다만 천국을 빼놓고는. 우리는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다. 다만 행복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참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금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절실하게 부딪치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문제가 절실한 사람은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영어문제가 절실한 사람은 영어를 유창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들 문제가 절실한 사람은 아들 낳기를 소망하고 결혼 문제가 절실한 사람은 속히 좋은 동역자를 만나 아름다운 스위트 홈을 꾸미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삶에 필요한 부수적(附隨的)인 것들이지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구해야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마6:33)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또한 사탄의 지배를 받고 파멸해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빼앗긴 땅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을 진리의 세계로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사람을 돕는 일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사람을 돕는 데는 일관된 원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한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겸손과 사랑과 온유로 섬겨야 합니다. 참으로 사람을 돕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목자로서 양들을 올바르게 잘 도울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찌하든지 양들을 쓰실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는 간절한 목자의 심정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양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을 잘 돕고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인간적인 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양을 지극히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이 충만하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시111:10)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14)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롭게 된 후에 자칫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 쉬움을 아셨습니다. 또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을 얻은 후에 타락하기 쉬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후에도 변함없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 여호와와 언약계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15)

## II. 지혜의 왕 솔로몬(3:16-4:34)

### 첫째,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3:16-28)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솔로몬의 지혜는 백성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창기 두 여자가 와서 재판을 청했습니다. 그들은 한 집에서 살았는데 사흘 간격으로 해산한 산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중의 한 아이가 잠버릇이 고약한 어머니로 인해 깔려죽고 한 아이만 남았습니다. 요즈음 소아과에서 젖먹이 아이들 육아상담을 할 때 엄마에게 절대로 아이와 한 이불에서 자지 말고 아이의 자리를 따로 마련해서 최소한 엄마의 팔 길이만큼 떨어져서 재우라고 말해줍니다. 그것은 이런 사고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여인은 살아 있는 아이가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요즈음 같으면 CCTV를 확인해 본다든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쉽게 친모를 판별할 수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친모를 구별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재판을 하려면 증인이 필요한데 이들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증인을 서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재판은 왕의 권위가 시험받는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만일 오판을 하면 왕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 참으로 진위(眞僞)를 가리기 어려운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가 번득였습니다.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 하여 살아있는 아들을 둘로 나뉘 반반씩 나눠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칼로 아이를 나누게 되면 아이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두 여인의 반응이 갈라졌습니다. 한 여자는 그게 좋겠다고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머니는 아이로 인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양육권을 포기할지언정 아이의 생명만은 제발 살려주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27) 그의 판결은 명 판결이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을 꿰뚫어 본데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진짜 생모가 가진 모성애가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의 지혜 앞에 선과 악이 분명히 구별되었습니다. 참과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28) 솔로몬의 판결을 지켜본 백성들은 그 마음에 왕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와이프우’ 인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경외하다.’ 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 지혜가 솔로몬 왕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솔로몬 왕의 영적 권위가 분명하게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란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은 칼로 아이를 나누라고 하면 가짜와 진짜 어머니가 구별될 것을 알았습니다. 자식을 빼앗길지언정 자식의 죽음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모정(母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볼 때 참된 지혜란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파악해 내는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지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 둘째, 이스라엘의 번영과 풍요(4장)

4장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나라를 잘 통치하였는가를 말해줍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권을 확립하고 정부 조직을 보다 능률적으로 체계화하여 이스라엘을 치리해 나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나라의 각 부서를 잘 조직하고 영적인 인재들을 등용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행정가였습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듯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 사람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1-19절은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 시대에 7부였던 중앙 조직을 9부로 확대하여 더욱 체계화 하였습니다. 솔로몬 정부의 중앙부서는 다윗 정부의 그것(삼하 20:23-26) 보다 궁내대신과 노동 감독관을 증원하고 지방 관장 12명을 새로 임명하였습니다. 솔로몬의 내각을 살펴 보면 사관과 제사장과 노동 감독관 등 3부 장관은 다윗시대의 인물들을 연임하여 중용하고 나머지 부서에는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하였습니다. 이는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치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동시에 새로운 통치에 부응하는 각료들로 내각을 구성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또 다윗의 시대에는 군대장관이 먼저 소개된 데 반해 솔로몬의 내각에서는 제사장과 행정관의 이름이 먼저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복전쟁을 치러온 다윗의 군사력 위주의 정책이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건축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틀을 만들고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국가정책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나라를 열두 구획으로 나누어 각각 지방 장관들을 임명하여 중앙 정부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지방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명의 지방장관들로 왕과 왕실을 위한 식물을 예비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정비되자 온 나라에는 평화와 풍요가 찾아들었습니다.

20-28절은 솔로몬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풍요에 대해 나옵니다. 솔로몬 왕국은 외교 경제 국방 면에서 유래 없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솔로몬의 통치의 영향력은 이스라엘을 넘어 애굽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인접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하루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삼십 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육십 고르였습니다. 1고르가 약 218리터이므로 90고르면 19,600리터로 이는 약 14,000명가량이 왕궁에 상근(常勤-매일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함)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솔로몬은 강 건너편 모든 왕들을 다스렸고 사방에 돌린 모든 민족이 솔로몬의 다스림 아래에서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는 21, 24절에서 반복되듯이 솔로몬이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대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 백성들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서 유유히 노니는 양떼들과 같이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은 지도자가 있을 때 백성들은 평안과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29-34절은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방 모든 나라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 이해와 학문적인 면에서도 뛰어나 잠언(箴言)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천다섯 편이나 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또한 식물학, 동물학, 조류학, 곤충학, 어류학 등에도 깊은 조예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다방면에 만물 박사였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천재입니다. IQ가 한 300, 400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번영의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단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덧입었을 때 나라를 가장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소문을 들은 천한 모든 왕들이 그 지혜를 들으러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無窮無盡)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은 사람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어떤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1: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이 지혜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골로새서 2:3절에 “그(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18,19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부활의 영광. 이것이 영적인 지혜요 영원한 지혜입니다.

헛된 지혜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잠언 22:17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돌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귀 기울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지혜롭게 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롭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마7:24) 또 영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지혜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상 모든 왕들보다 뛰어난 지혜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학교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전공과 사명을 감당하고 양 무리를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